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Middle-aged employed men's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plans for post-retirement lif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대학원생 이승아
교수 한경혜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 Seung-Ah Lee

Prof. : Gyoung-Hae Han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verall levels of the middle-aged employed men's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plans for post-retirement life, and to explore the relative effects of personal, family, and job characteristics on retirement attitude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438 middle-aged (ranging from 41 to 50) employed men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i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had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 level of planning for post-retirement life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core on the scale. Next, the positive attitudes of middle-aged employed men toward retirement were observed from those who have higher education, larger household income, higher job security and lower job stress respondents who hold professional, administrative, or official jobs were more positive toward retirement than those who hold manufacturing or sales jobs. A well-planned post-retirement life was found among those who have better health, higher job satisfaction, job security and job orientation. Job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job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showed stronger impact than personal or family ones on the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Household income and health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I. 문제 제기

오늘날과 같은 직업 중심적 사회에서 퇴직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노년기에 예측 가능한 발달적 생활 사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퇴직 후의 생활 적응이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상승 및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서구의 선행 연구는 퇴직 전 중년기에서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이 어떠한가에 따라 퇴직 과정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서 퇴직 후의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George, 1980; Glamser, 1976; Hendricks & Hendricks, 1986; 허정무, 1993에서 재인용; Hooyman & Kiyak, 1988; McPherson & Guppy, 1979). 또한 어떤 요인들이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작업(Atchley, 1980; 장인협·최성재, 1994에서 재인용; Cutler, 1973; George & Maddox, 1977; Goudy et al., 1980; Remondet et al., 1991; Woodruff & Birren, 1983)이 상당 정도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영향의 방향성이나 정도에 있어 일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퇴직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 소수의 연구들마저 주로 정년 제도의 유형이나 실태 분석에 국한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 직장 남성이 퇴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앞으로 퇴직을 경험하게 될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

들의 퇴직 후 노년기의 삶을 예측하는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퇴직은 일반적으로 유급의 직업적 지위와 역할에서 물러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 즉 모든 직업적 경력의 중단을 의미한다. 퇴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퇴직을 사건, 역할, 과정의 세 측면에서 접근해 왔으며(George, 1980),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 사건 또는 다른 과정들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접근하기도 한다(Taylor, 1972). 최근의 연구들은 퇴직이 생활 주기상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역할 전환의 과정(process)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은 퇴직 후 적응이 노년기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퇴직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퇴직 후의 생활에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퇴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 등에 의해서 퇴직을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결과이다(Maddox, 1970). 즉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 규정, 과거에 대한 평가, 장애에 대한 예측, 노후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자기 평가 및 이해 과정이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George, 1980; Glamser, 1976; Hendricks & Hendricks, 1986; 허정무, 1993에서 재인용; Hooyman & Kiyak, 1988; McPherson & Guppy, 1979)에 따르면 중년기에서 퇴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와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가가 퇴직 후 노년기의 생활 적응 및 안정과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을수록, 그리고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 정도가 높았던

경우에 퇴직 후 생활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2.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선행 연구에서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 변수들은 크게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의 범주로 나뉘어진다.

1)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로는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가계 소득, 부인 취업 여부, 자녀수가 있다. 먼저 연령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Kilty & Behling, 1985)가 있는가 하면, 퇴직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Johnson & Strother, 1962)도 있다. 퇴직 후 생활 계획은 연령이 높을수록 계획성이 높다는 연구(Kilty & Behling, 1985)와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 관리 영역에서는 계획성이 낮으나 그 외 취미 활동 등의 영역에서는 계획성이 높다는 연구(Johnson & Strother, 1962)가 있다. 그런가 하면 연령에 따른 퇴직 후 생활 계획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허정무, 1993)도 있다.

교육 수준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향은·정옥분, 199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퇴직 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많으므로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Kilty & Behling, 1985). 그런가 하면 연령과 교육 수준의 높은 상관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두 변수가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연구(Johnson & Strother, 1962)도 있다. 퇴직 후 생활 계획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계획성이 높다는 연구(McPherson & Guppy, 1979)가 있는가 하면,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Atchley & Robinson, 1982; Evans et al., 1985에서 재인용; Barfield & Morgan, 1978), 퇴직 후 생활 계획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field & Morgan, 1978; McPherson & Guppy, 1979).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Atchley & Robinson, 1982; Evans et al., 1985에서 재인용; Katona & Morgan, 1967; McPherson & Guppy, 1979; Shanas, 1972; Glamser, 1976에서 재인용), 퇴직 후의 취미 생활, 건강 유지, 여가 등에 대한 계획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지연경·조병은, 1991; McPherson & Guppy, 1979). 그런가 하면 가계 소득에 따른 퇴직 후 생활 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퇴직에 따른 일정한 수입의 단절 및 소득 감소로 인한 퇴직 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저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향은·정옥분, 1992).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와 경제적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 상실에 대한 남편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부양 책임의 부담은 퇴직에 대한 태도를 더욱 부정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Barfield & Morgan, 1978), 따라서 부인 취업 여부와 자녀수가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 요인인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2) 직업 특성 변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특성 변수로는 직업 종류, 정년, 직업 만족도, 직업 안정성, 직업 스트레스, 직업 지향성이 있다. 먼저 직업 종류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Goudy et al., 1980),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하여,

그리고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urgess et al., 1958). 그런가 하면 직업적 지위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이 직업적 지위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사람들보다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Kerckhoff, 1964)도 있다. 퇴직 후 생활 계획도 직업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Burgess et al., 1958; McPherson & Guppy, 1979),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직업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이 높다(Burgess et al., 1958; Evans et al., 1985). 반면 직업 종류에 따른 퇴직 후 생활 계획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정년 연령이 낮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데(김향은·정옥분, 1992; Palmore et al., 1984), 이는 정년에 따른 직업 역할 상실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년 시기가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분포하고, 중년기와 노년기를 만 6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으므로(김명자, 1995; 김태현, 1982; 장인협·최성재, 1994), 본 연구에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정년 변수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Kilty & Behling, 1985; Evans et al., 1985)가 있는가 하면,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라는 연구(Parnes et al., 1970; Goudy et al., 1975에서 재인용)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직업 만족도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Goudy et al., 1975; Johnson & Strouther, 1962)도 있다. 퇴직 후 생활 계획은 직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계획성이 높다는 연구(Evans et al., 1985)가 있는가 하면, 직업 만족도에 따른 퇴직 후 생활 계획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Johnson & Strouther, 1962)도 있어서 선행 연구들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직업 안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강제 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직업 안정성이 낮거나 해직 및 권고사직의 위험을 많이 느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지적되는가 하면(Woodruff & Birren, 1983),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Hardy & Quadagno, 1995).

직업 스트레스 및 업무 부담도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Jacobson, 1972; Sheppard, 1976; Evans et al., 1985에서 재인용), 직업 지향성이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지적된다(장인협·최성재, 1994; Atchley, 1971; Fillenbaum, 1971; Goudy et al., 1975; Johnson & Strother, 1962; Kilty & Behling, 1985).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생애 발달 단계 중 중년기에 위치한 만 40-59세의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1997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50부의 질문지를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과 울산시·충청남도·경상남도의 공단 지역에 배포하여 55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 기재 질문지 등을 제외한 총 438부를 최종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DOWS V.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의 구성

퇴직에 대한 태도 척도는 지연경·조병은(1991), Evans 등(1985), Goudy 등(1980)의 연구에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 분포는 9점에서 4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5$ 로 척도 내에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퇴직 후 생활 계획 척도는 김향은·정옥분(1992), 지연경·조병은(1991), 허정무(1993), Burgess 등(1958), Evans 등(1985), Glamser(1976), McPherson 등(1979), Rowe(197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퇴직 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비한 계획을 묻는 1문항, 퇴직금 및 연금 관리·생활비 준비·각종 경비 지출·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을 묻는 4문항, 그리고 건강 관리·취미 활동·시간 관리·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계획을 묻는 4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전혀 계획이 없다' 1점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5점까지의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 분포는 9점에서 4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퇴직 후 생활 계획의 계획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8$ 로 척도 내에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만 40-59세의 중년기 직장 남성 438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40-44세가 47.3%, 45-49세가 29.5%, 50-54세가 17.1%, 55-59세가 6.2%로 평균 연령은 45.8세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5.7%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55.7%에 달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37.8%, 중학교 졸업 이하는 6.4%로 약간 상향 편포되었다. 가계 소득은 151-250만원이 34.8%, 251-350만원이 27.4%로 이 두 집단이 전체 응답자의 62% 이상을 차지하였다. 150만원 이하는 11.9%, 351-450만원은 12.4%, 451만원 이상은 13.4%이었으며, 가계 월소득 평균은 322만원이었다. 건강 상태는 좋음 49.5%, 보통 46.6%로 응답자 대부분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

임을 알 수 있었다. 부인 취업 여부는 응답자 71.6%의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전업 주부인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중년기 직장 남성들이 주된 경제적 부양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65.7%로 가장 많았고, 1명은 10.5%, 3명 이상은 23.8%이었다.

직업 종류는 전문직 18.3%, 관리직 23.5%, 사무직 26.7%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과 생산·노무직은 각각 2.5%, 29.0%이었다. 한편 판매·서비스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 직종의 응답자들이 비교적 자영업과 정년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공식적 정년은 55세 이하가 37.5%, 56-59세가 34.4%, 60세 이상은 28.1%이었다.

2.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는 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로서, 그 전반적인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퇴직에 대한 태도

| | 빈도 (%) |
|--------------|-------------|
| 긍정적 (31-40점) | 107 (25.3) |
| 중도적 (24-30점) | 225 (53.3) |
| 부정적 (11-23점) | 90 (21.3) |
| 계 | 422 (100.0) |
| 평균 (표준편차) | 27.1 (5.5)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 수준은 11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했으며, 평균은 27.1점으로 나타났다. 퇴직에 대한 태도 척도의 응답 가능한 점수 분포가 9점에서 45점 사이이고 척도상의 중앙값이 27점이므로, 퇴직에 대한 태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에 대한 태도를 '평균 $\pm \frac{1}{2}$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세 집단 분류한 응답 분포를 살펴봐도 역시 '중도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인

5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퇴직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는 25.3%,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는 21.3%이었다.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서구의 선행 연구(Atchley, 1980; 장인협·최성재, 1994에서 재인용; Woodruff & Birren, 1983)에 비해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퇴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 후 생활 계획 수준은 9점에서 45점 사이에 분포했으며, 평균은 29.6점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생활 계획 척도의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가 9점에서 45점 사이이고 척도상의 중앙값이 27점이므로, 퇴직 후

<표 2> 퇴직 후 생활 계획의 정도

| | 빈도 (%) |
|------------|-------------|
| 상 (33-45점) | 134 (31.3) |
| 중 (27-32점) | 185 (43.2) |
| 하 (9-26점) | 109 (25.5) |
| 계 | 428 (100.0) |
| 평균 (표준편차) | 29.6 (5.5) |

생활 계획은 중간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남성의 퇴직 후 생활 계획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구의 선행 연구(Atchley, 1980; 장인협·최성재, 1994에서 재인용; Woodruff & Birren, 1983)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퇴직 후 생활 계획에 대비한 계획성의 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결과를 보면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 정도가 비교

<표 3>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간의 상관 관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
| A | 1.00 | | | | | | | | | | | | | | |
| B | -.09* | 1.00 | | | | | | | | | | | | | |
| C | .02 | .05 | 1.00 | | | | | | | | | | | | |
| D | .02 | .25*** | .13** | 1.00 | | | | | | | | | | | |
| E | -.10* | -.00 | -.01 | .12* | 1.00 | | | | | | | | | | |
| F | .36*** | -.19*** | .08 | -.05 | -.01 | 1.00 | | | | | | | | | |
| G | .15*** | .49*** | .01 | .15** | -.02 | -.02 | 1.00 | | | | | | | | |
| H | -.22*** | .09* | .06 | .01 | -.05 | -.10* | -.50*** | 1.00 | | | | | | | |
| I | .16*** | .18*** | -.12** | -.02 | -.01 | .05 | .16*** | -.09** | 1.00 | | | | | | |
| J | .06 | .26*** | .15*** | .18*** | -.02 | .00 | .31*** | -.05 | .05 | 1.00 | | | | | |
| K | .11* | .02 | .04 | -.03 | -.01 | .05 | .05 | -.03 | .11* | .19*** | 1.00 | | | | |
| L | -.14** | .07 | -.08 | .03 | .09* | -.05 | -.07 | .15*** | -.08* | -.11** | -.31*** | 1.00 | | | |
| M | .12** | .09* | .08* | .05 | -.10* | .04 | .15*** | -.07 | -.04 | .47*** | .08 | .09* | 1.00 | | |
| N | -.09* | .14** | .11* | .14** | .07 | -.04 | .11* | .07 | .05 | .10* | .29*** | -.12** | -.05 | 1.00 | |
| O | .07 | -.04 | .17*** | .07 | .08 | .06 | .01 | -.05 | -.00 | .19*** | .11 | -.02 | .12** | .33*** | 1.00 |
| 평균 | 45.77 | 3.58 | 3.51 | 321.81 | .28 | 2.17 | .42 | .27 | .28 | 11.65 | 9.66 | 12.88 | 12.22 | 27.13 | 29.62 |
| S.D. | 4.82 | .80 | .67 | 283.92 | .45 | .67 | .49 | .44 | .45 | 2.74 | 2.28 | 2.53 | 2.65 | 5.52 | 5.51 |

* p<.05 ** p<.01 *** p<.001

A 연령 D 가계 소득 G 직업 1 J 직업 만족도 M 직업 지향성
 B 교육 수준 E 부인 취업 여부 H 직업 2 K 직업 안정성 N 퇴직에 대한 태도
 C 건강 상태 F 자녀수 I 공식직 정년 L 직업 스트레스 O 퇴직 후 생활 계획

※ 부인 취업 여부 (1: 취업 / 0: 비취업)

※ 직업 1 (1: 전문·관리직 / 0: 생산·판매직), 직업 2 (1: 사무직 / 0: 생산·판매직)

※ 공식직 정년 (1: 60세 이상 / 0: 59세 이하)

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있어 조사 대상자 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관련 변수

선행 연구에서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먼저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간의 상관 관계 <표 3>을 살펴보았다. 퇴직에 대한 태도는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가계 소득, 직업 종류(직업1, 직업2), 직업 만족도, 직업 안정성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연령, 직업 스트레스와는 부적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퇴직 후 생활

계획은 건강 상태, 직업 만족도, 직업 스트레스, 직업 지향성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다음, 퇴직에 대한 태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인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가계 소득, 부인 취업 여부, 자녀수를 독립 변수로 한 모델 I을 분석한 결과, 모델 I은 퇴직에 대한 태도 변량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 변수 중 교육 수준($p<.05$)과 가계 소득($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 수준과 퇴직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를 살펴본 Kilty와 Behling(1985)의 연구 결과와 가계 소득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Atchley & Robinson, 1982; Evans et al., 1985에서 재인용; Katona & Morgan, 1967; McPherson & Guppy, 1979; Shanas, 1972; Glamser, 1976에서 재인용)의 결

<표 4> 퇴직에 대한 태도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 변수 | 모델 I | | 모델 II | | |
|--------------------|---------------|---------|-------|---------|--------|
| | b | β | b | β | |
| 개인 및 가족 특성 | 연령 | -.09 | -.08 | -.13 | -.11* |
| | 교육 수준 | .73 | .11* | .07 | .01 |
| | 건강 상태 | .73 | .09 | .61 | .08 |
| | 가계 소득 | .00 | .10* | .00 | .11* |
| | 부인 취업 여부 | .64 | .05 | .72 | .06 |
| | 자녀수 | .04 | .01 | .02 | .00 |
| 직업 특성 | 직업 1 (전문·관리직) | | | 1.74 | .16* |
| | 직업 2 (사무직) | | | 1.66 | .14* |
| | 공식적 정년 | | | .26 | .02 |
| | 직업 만족도 | | | .02 | .01 |
| | 직업 안정성 | | | .68 | .28*** |
| | 직업 스트레스 | | | -.11 | -.05 |
| | 직업 지향성 | | | -.16 | -.08 |
| 상수항 | | 25.11 | | 24.98 | |
| R ² | | .05 | | .16*** | |
| R ² 증가량 | | | | .11*** | |

* $p<.05$ ** $p<.01$ *** $p<.001$

※ 부인 취업 여부 (1: 취업 / 0: 비취업)

※ 직업 1 (1: 전문·관리직 / 0: 생산·판매직), 직업 2 (1: 사무직 / 0: 생산·판매직)

※ 공식적 정년 (1: 60세 이상 / 0: 59세 이하)

과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다음으로 모델 I에 직업 특성 변수인 직업 종류, 공식적 정년, 직업 만족도, 직업 안정성, 직업 스트레스, 직업 지향성을 독립 변수로 추가한 모델 II를 분석한 결과, 모델 II는 퇴직에 대한 태도 변량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11%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 II에서 퇴직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p < .05$), 가계 소득($p < .05$), 직업 종류($p < .05$), 직업 안정성($p < .001$)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생산·판매직에 비해, 그리고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직업 특성 변수인 직업 안정성이 퇴직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관리직(직업 1)과 사무직(직업 2)이 생산·판매직에 비하여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 안정성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Woodruff & Birren, 1983), 그리고 직업 종류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선행 연구(Burgess et al., 195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육 수준은 모델 I에서는 유의한 변수이었으나 모델 II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직업 특성 변수를 통제된 결과 교육 수준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퇴직 후 생활 계획을 종속 변수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인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가계 소득, 부인 취업 여부, 자녀수를 독립 변수로 한 모델 I을 분석한 결과, 모델 I은 퇴직 후 생활 계획 변량의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 변수 중 건강 상태($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 상

<표 5> 퇴직 후 생활 계획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 변수 | 모델 I | | 모델 II | | |
|---------------|---------------|---------|--------|----------|-------|
| | b | β | b | β | |
| 개인 및 가족 특성 | 연령 | .07 | .06 | .04 | .04 |
| | 교육 수준 | -.30 | -.04 | -.50 | -.07 |
| | 건강 상태 | 1.33 | .16*** | 1.17 | .14** |
| | 가계 소득 | .00 | .05 | 7.52E-04 | .04 |
| | 부인 취업 여부 | .98 | .08 | .98 | .08 |
| | 자녀수 | .21 | .03 | .17 | .02 |
| 직업 특성 | 직업 1 (전문·관리직) | | | -.44 | -.04 |
| | 직업 2 (사무직) | | | -.55 | -.05 |
| | 공식적 정년 | | | .18 | .01 |
| | 직업 만족도 | | | .33 | .17** |
| | 직업 안정성 | | | .20 | .08 |
| | 직업 스트레스 | | | .08 | .04 |
| | 직업 지향성 | | | .07 | .03 |
| 상수항 | | 21.92 | | 17.29 | |
| R^2 | | .04 | | .08*** | |
| R^2 증가량 | | | | .04** | |

* $p < .05$ ** $p < .01$ *** $p < .001$

* 부인 취업 여부 (1: 취업 / 0: 비취업)

* 직업 1 (1: 전문·관리직 / 0: 생산·판매직), 직업 2 (1: 사무직 / 0: 생산·판매직)

* 공식적 정년 (1: 60세 이상 / 0: 59세 이하)

태에 따른 퇴직 후 생활 계획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Barfield & Morgan, 1978; McPherson & Guppy, 197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델 I에 직업 특성 변수인 직업 종류, 공식적 정년, 직업 만족도, 직업 안정성, 직업 스트레스, 직업 지향성을 독립 변수로 추가한 모델 II를 분석한 결과, 모델 II는 퇴직 후 생활 계획 변량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을 4% 정도 증가시키고 있었다. 모델 II에서 퇴직 후 생활 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 상태($p<.01$), 직업 만족도($p<.01$)로 나타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회귀 계수(β)의 크기로 살펴보면 직업 만족도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퇴직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년기 직장 남성은 퇴직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중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퇴직 이전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 등에 의해서 퇴직 후의 물질적·정신적 자원 확보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이해를 높일수록 긍정적이다(Maddox, 1970). 따라서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퇴직 전부터 지속적인 생활 교육을 받아 퇴직 후의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낮을수록, 직업 종류가 생산·판매직인 집단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인 집단

에 비해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등으로 가계의 지출이 상당 정도 요구되므로(장인협·최성재, 1994; 지연경·조병은, 1991), 퇴직 후의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연금 및 보험 가입 등의 경제적 준비는 퇴직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긍정적이게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및 퇴직 적응 생활 교육의 활성화와 노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인 관련 산업에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기춘·여정성, 1996).

둘째, 우리나라 중년기 직장 남성들은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여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막연한 정도 이상의 계획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노년기에서의 생활 적응은 퇴직 후 생활 계획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므로(George, 1980; Glamser, 1976; Hendricks & Hendricks, 1986; 허정무, 1993에서 재인용; Hooyman & Kiyak, 1988; McPherson & Guppy, 1979), 퇴직 준비 교육의 보편화 및 활성화를 통해 퇴직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낮을수록, 직업 지향성이 낮을수록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이 낮았으므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퇴직에 대한 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노년기의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핵가족화와 부양 의식의 변화에 따라 노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중년기 직장 남성 개인이 퇴직 전부터 퇴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 이므로(장인협·최성재, 1994; 지연경·조병은, 1991),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국민 연금 제도 보완 및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한 공적 부조가 절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료 분석 결과,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는 직업 안정

성이나 직업 만족도와 같은 직업 특성 변수가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계 소득이나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관한 연구는 직업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관련 변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에 대한 태도에는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직업 종류, 직업 안정성이, 퇴직 후 생활 계획에는 건강 상태, 직업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모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는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떤 특성 변수 집단이 반드시 퇴직 후 생활 계획의 정도가 높다거나 낮다고는 할 수 없는, 퇴직 후 생활 계획에 따라서 역시 퇴직에 대한 태도를 유추할 수는 없는, 즉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독립적인 영역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관련 변수들은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을 별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 변수 이외에도 내외 통제성이나 자아 정체감 등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성 특성 변수도 중요한 변수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생활 계획에는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 외에도 퇴직과 관련된 복지 시설, 노후 보장 정책, 퇴직 준비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 환경적 특성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수를 포함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에서는 본 연

구와는 달리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이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두 영역간의 상호 작용이나 관련 현상을 분석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퇴직 전 중년기에서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따른 퇴직 후 노년기에서의 생활 적응 및 삶의 질을 조사하는 체계적인 종단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는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퇴직 전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탐색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퇴직 예정자를 위한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입안, 그리고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 적응 및 노년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김명자(1995), 여성의 중년기 - 과연 위기의 시기인가, *중년기 여성의 삶, 제2회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심포지움 자료집*, 5-20.
- 2) 김태현(1996), 노년학, 교문사.
- 3) 김향은·정옥분(1992),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심리적 불안, *대안가정학회지*, 30(2), 159-169.
- 4) 이기춘·여정성(1996), 고령화 사회의 노년기 경제생활문제와 그 대책, 21세기의 전망 : 고령화 시대와 삶의 질,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97-129.
- 5) 장인협·최성재(1994),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6)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안가정학회지*, 29(2), 217-240.
- 7)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 퇴직 준비 과정과 퇴직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8) Atchley, R.C.(1971), Retirement and Work Orientation, *The Gerontologist*, 11, Spring, 29-32.
- 9) Barfield, R., & Morgan, J.(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ist*, 18, 13-18.
- 10) Burgess, E.W., Corey, L.G., Pineo, P.C., & Thornbury, R.T.(1958), Occup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Aging an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13, 203-206.
- 11) Cutler, S.J.(1973),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 A Cautionary Research Note, *Journal of Gerontology*, 28, 96-100.
- 12) Evans, L., Ekerdt, D.J., & Bosse, R.(1985), Proximity to Retirement and Anticipatory Involvement :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68-374.
- 13) Fillenbaum, G.G.(1971), On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to work and attitude to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26, 244-248.
- 14) George, L.K., & Maddox, G.L.(1977), Subjective Adap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2, 456-462.
- 15) _____(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16) Jamser, F.D.(1976), Determinants of a positive Attitude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1(21), 104-107.
- 17) Goudy, W.J., Powers, E.A., Keith, P.M.(1975), Work and Retirement : A Test of Attitudinal Relationships, *Journal of Gerontology*, 30(2), 193-198.
- 18) Goudy, W.J., Powers, E.A., Keith, P.M., & Reger, R.A.(1980), Changes in Attitudes Toward Retirement : Evident from a Panel study of Older males, *Journal of Gerontology*, 35(6), 942-948.
- 19) Hardy, M.A., & Quadagno, J.(1995), Satisfaction With Early Retirement : Making choices in the Auto Industry, *Journal of Gerontology*, 50(4), 217-228.
- 20) Hooyman, N.R., & Kiyak, H.(1988),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Allyn and Bacon Inc.
- 21) Johnson, L., & Strother, G.B.(1962), Job Expectation and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Gerontology*, 17, 418-423.
- 22) Kerckhoff, A.C.(1964), Husband-wife expectations and reactions to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19, 510-516.
- 23) Kilty, K.M., & Behling, J.H.(1985), Predicting the Retirement Intentions and Attitude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0(2), 219-227.
- 24) Maddox, G.L.(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4-18.
- 25) McPherson, B., & Guppy, N.(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254-263.
- 26) Palmore, E., Fillenbaum, G., & George, L.(1984), Consequences of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9(1), 109-116.
- 27) Remondet, J.H., & Hansson, R.O.(1991), Job-Related Threats to Control Among older Employees, *Journal of Social Issues*, 47(4), 129-141.
- 28) Taylor, C.(1972), Developmental Conceptions and the Retirement Process, in F.M. Carp(ed), *Retirement*,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s, Inc.
- 29) Woodruff, D.S., & Birren, J.E.(1983),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2nd ed)*, California : Brooks/Cole.